



아이유 '미인' 뮤비 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이유 '미인' 뮤비 공개

가수 아이유가 29일 0시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셋' 수록곡 '미인'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이 뮤직비디오는 '꽃갈피 셋' 앨범에서 타이틀곡 '네버 엔딩 스토리' (Never Ending Story)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것이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라는 유명한 가사로 시작하는 뮤직비디오에는 빛나는 얼굴을 가진 소년과 그림자가 드리워진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영상에는 두 인물이 아이에서 어른이 되기까지의 다양한 순간이 담겼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아이유의 상대 역할로 카메라 출연해 호흡을 맞췄다.

'미인'은 한국 록의 전설 신중현의 동명 원곡을 리메이크한 곡으로, 얼터너티브 K팝 그룹 바빙타이거가 편곡했다.

바빙타이거 멤버로 활동하는 영상 감독 이수호가 뮤직비디오 연출을 맡았다. 또 다른 멤버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산양도 영상 작업에 참여했다.

아스트로 차은우, 7월 현역 입대



그들 아스트로의 차은우가 오는 7월 28일 현역 입대해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한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최근 육군 군악대에 지원해 오늘 병무청으로부터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차은우는 훈련소 입소 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육군 군악대에서 병역을 이행한다.

판타지오는 "입소 당일 혼잡으로 인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차은우의 입대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라며 "별도 행사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마 어워즈' 11월 홍콩서 개최

CJ ENM이 11월 28~29일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글로벌 K-팝 시상식 '2025 마마 어워즈' (MAMA AWARDS)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홍콩에서 마마 어워즈가 열리는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마마 어워즈는 1999년 엠넷 영상음악대상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음악 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시상식이다.

올해는 엠넷 설립 3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마마 어워즈 개최자인 홍콩을 다시 찾게 됐다고 CJ ENM은 설명했다.

규모도 4배가량 키운다.

이번에 무대가 되는 카이탁 스타디움은 올해 3월 개장했으며, 최대 5만명을 수용하는 대형 시설이다.

CJ ENM 측은 "홍콩은 전세계 K-팝 팬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허브"라며 "마마 어워즈는 올해 오랜만에 중화권을 찾아 또 하나의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TV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지면 사정상 모든 채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EBS1.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오늘의 운세

Horoscope section for the date 5월 30일 (음력 5월 4일). Includes zodiac signs (子, 寅, 辰, 午, 申, 戌, 丑, 卯, 巳, 未, 酉, 亥) and their corresponding daily forecasts.